

유럽 순방 마친 文 메시지는 “V4 최대 투자처, 연대 노력을”

(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V4 중요성, 국민·언론 잘 몰라”
성장성 강조하며 관련 홍보 주문
요소수 등 국내 현안도 점검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관련 후속 조치를 정부에 지시했다. V4(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국가를 비중 있게 보고, 관련 홍보도 해달라는 게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정국에 휘둘리지 않고 주요 현안을 챙길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23)’ 글에서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관련 지시사항을 소개했다. SNS 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일정 가운데 아쉬운 점으로 ‘V4 국가의 역동성과 중요성에 대해 국민과 언론이 잘 모른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앞으로 이 나라들에 대해 언론이 국민께 자세히 알려 드리고 이 나라들과의 협력과 연대가 우리나라 발전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V4 국가가 한국의 EU(유럽연합) 내 최대 투자처이자 2대 교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바르케르트 바자르 기자회견장에서 한-비세그라드 그룹(V4)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역국, 65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한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 기업은) 그곳을 생산 기지화해 우리 수출의 현지 거점이 되고 있다. 무역규모에서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압도하고 있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V4 국가의 성장률(3.6%)이 EU 연평균 성장률(1.7%)과 비교해 높은 점도 소개했다.

V4 국가와 분야별 교류 방안도 문 대통령 지시에 있었다. 문 대통령은 민족 의식이나 국민 정서적으로도 V4 국가가 한국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

고 “연대와 협력이 매우 용이할 수 있다”며 한국 대학과의 공동캠퍼스 설립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지난 3일(현지시간) 업무 오찬에서 “헝가리는 기초과학의 수준이 매우 높아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며 양국 간 대학교육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면서 “헝가리뿐만 아니라 4개국 정상들 공히 한국 대학과의 공동캠퍼스 설립 등 학생·청년 교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헝가리는 기초과학 분야

의 수준이 매우 높아 노벨상 수상자를 13명이나 배출한 나라이니 이들 나라의 제안을 잘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유럽 순방뿐 아니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요소수 수급 불안정 사태 등 국내 현안도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 현안으로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역 관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 보상 사각지대 보완 등이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두고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 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 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지난 3일(현지시간)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먼저 시행한 헝가리의 경험을 공유하자”고 제안하며 관련 현안을 챙기기도 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것으로 현 대선 정국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맞춤형 손실보상’ 방침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다. 민주당과 정부가 또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갈등을 표출한 모습이다.

경유차에 있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사용하는 요소수 수급이 불안정한 문제도 최근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다만 청와대, 정부, 민주당 등 당·정·청이 요소수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에 나선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해 문 대통령이 직접 상황 관리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선 정국 가운데 문 대통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만남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만남 당시 청와대가 ‘야당 후보와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본지와 통화에서 “(윤 후보 측에서)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데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윤 후보가 문 대통령과 이 후보 간 만남을 ‘선거 중립 위반’으로 규정하고 비판한 만큼 먼저 요청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에 청와대는 과거 전례 검토 후 이철희 정무수석을 통해 축하 메시지가 나갈지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는 대변인 명의로 제1야당인 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 대통령 선출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외연 확장 나선 李, 네거티브 우려 불식 관건

여야 네거티브 선거 우려 커져
이재명 측 “미래비전 공약 제시”
보수 텃밭 대구 방문해 공략 나서

2022년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 대진표가 완성된 가운데 여야 대선 주자의 리스크로 그 어느 때보다 네거티브 선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대 대선은 가장 먼저 대선 경선을 끝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시작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마지막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20대 대선은 19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4자 구도를 형성했다.

그러나 20대 대선은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양강 구도를 이루는 여야 대선 주자의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윤석열 후보는 ‘고발사주 의혹’을 비롯해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의 혐의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20대 대선은 양강 구도를 형성한 두 후보 간 네거티브 선거로 치우쳐져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제시나 정책 실종 등 우려도 높아졌다.

이에 이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 측은 국정감사에서 보인 이 후보의 정면들과 모습과 더불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밝히는 공약 제시 등 정책선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정권재창출이 목표인 여당 후보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계승할 정책은 계승하고, 사과할 것을 사과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오후 민생탐방을 위해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등 차별성을 바탕으로 청출어람의 모습을 보인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의 성남 시장 재직 시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보였던 전투적인 모습보다는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며 유권자들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

또한 이 후보는 민주당 용광로 선대위 공식 출범 이후 연일 중도층 공략 등의 행보를 보이며 외연 확장과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이 후보는 첫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도 당부한 ‘부동산 대개혁’을 중심으로 2030 세대와 접촉을 늘리면서 대선 초반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K-웹툰, 월드컵 축사 등 2030 세대에겐 친숙한 디지털 콘텐츠를 주제로 소통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경험과 향후 대책을 발표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더욱이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지명된 5일, 첫 지역 유세지로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방문해 청년 및 지역성인들과 만나며 세(勢)과 시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또 6일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 대담에 참석해 윤 후보를 겨냥, “저는 미래를 이야기 하는데 그분은 주로 과거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주로 보복, 복수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7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후보의 최근 행보는 정치적 의도보다는 맞받아 칠만한 이슈가 없다”며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남다른 피한다고 했지만, 국정감사에 참여해서 불리한 형세와 지형에서도 잘 대응했다. 일단은 상대의 공세가 국민적인 동의를 얻는 건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도 후보가 이제 정해졌고,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위기와 대전한 앞에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결을 진행하자고 했다”며 “그래서 이 후보는 정책 행보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는 물론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힘과 보수의 여력을 모아 후보가 됐지만, 짧은 정치 입문 기간동안 국가 지도자에 대한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공부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 후보의 행보에 맞춰 강한 네거티브 라든가 받아치는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미래비전이나 새로운 대한민국 대전환에 대한 정책 제시를 통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국민 의견에 부합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洪 “내 역할 종료”… 野 원팀 구성 ‘적신포’

洪 “비리 대선” 참여안해” 선 그어
尹 “우린 정권교체 위한 간부” 구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본격전에서 유력 경쟁 후보였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하나로 뭉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나 홍 의원은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혀 ‘원팀 캠프’ 구성에 적신포가 커졌다.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자 2030 당원의 탈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홍 의원을 캠프에 영입해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했던 캠프 구상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홍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기보다, 자신에게 높은 지지를 보내준 청년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홍 의원은 7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대선에서 저는 우리 당 경선을 역동적이게 만들고 안개 속 경선으로 흥행 성공을 하게 함으로써 그 역할은 종료됐다고 본다”며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다만 이번에 저를 열광적으로 지지해준 2040들의 놀이터인 청년의꿈 플랫폼을 만들어 그분들과 세상 이야기하면서 향후 정치 일정을 가져가고자 하며 나머지 정치 인생은 이땅의 청장년들과 꿈과 희망을 같이 하는 여유와 낭만으로 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의 거부 메시지가 나오자 윤 후보는 곧바로 홍 후보에 대한 ‘공개 구애’에 나섰다. 윤 후보는 7일 자신의 SNS에 “홍준표 선배님의 짧은 메시지는 제 기쁨을 뭉클하게 했다”며 “저의 수락

연설보다 훨씬 빛났고 멋진 위트까지 결집된 낙선 인사와 국민과 당원들에게 보여준 만행다운 그 미소,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모두 ‘정권교체를 위한 간부’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지 않는 배경은 복잡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경선에서 ‘무야홍’ 신드롬과 높은 청년층 여론조사 지지율이 홍 의원의 정치적 입지를 더 넓혔다는 분석이다. 윤 후보와 6.35%포인트 뒤져 고배를 마신 본경선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홍 후보는 과거 ‘막말 정치인’ 이미지를 털어버리고 2030 세대에겐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청년 플랫폼을 구상하겠다는 것도 이런 정치적 입지 확장의 연장선이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는 홍 의원의 ‘정치적 양측’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 홍 의원의 캠프 전격 합류를 망설이게 하고 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무소속 신분이던 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막은 바 있다. 이에 더해 김 전 비대위원장은 본경선 막바지에 윤 후보 공개 지지 선언을 해, 윤 후보에 힘을 실어 주기도 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본지와 통화에서 “홍 의원 본인도 이번 지지율에 대해서 놀랐던 것 같고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홍 의원 정도 되는 나이에 경선에서 떨어지면 그동안 한국 정치사에서 정치를 그만뒀는데, 정치적 미래가 남아있다는 것을 판단하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라고 분석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